

# BAUHAUS의 조형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sign Education Program of BAUHAUS

하상오

Ha Sang-Oh

동아대학교 산업미술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Dong-A Univ.

Keywords / 예비과정, 조형형태론, 대비론, 색채분석, 분석적대상

### 1. 머릿말

바우하우스는 근대 디자인사를 통하여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으로부터 독일의 베르크본트에 이르는 정신을 계승하며 학교교육이라는 공동체를 매개로한 종합조형운동으로서 근대디자인의 방법론 형성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바우하우스에서 활약한 천재적인 예술가들-파이닝거, 클레, 칸딘스키, 슈뢰머 등은 그들의 교육활동이 없었다라도 예술가로서의 뛰어난 위치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바우하우스는 몇몇 지도자들의 천재적인 예술활동에 의존하는 예술아카데미로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기계시대 공업제품의 조형에 관한 디자인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와같은 바우하우스의 위대한 업적은 조형교육에 관한 일관된 교육이론의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우하우스 이해의 출발점으로서 바우하우스의 실천적 조형활동의 공간을 형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예비과정(Vorlehre)-기초과정(Grundlehre)의 조형교육방법을 조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2. 바우하우스의 교육이념

바우하우스의 교육목표는 예술의 재통합과 수공예가 내지는 창조적 예술가의 교육에 있었다. 창립자 그로피우스는 중세의 대건축가들이 이룩했던 노동과 예술의 이상적인 합일체로서의 전인적 인간상의 실현을 그 목표로 삼았으며, 나아가 아르누보의 전시대적 서정성과 결별하고 다가오는 기계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예술가와 기계생산구조의 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 3. 바우하우스의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

바우하우스의 교육과정은 예비교육, 공작교육, 건축교육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교과내용은 공작교육과 형태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 3-1. 교육과정

A. 예비교육 : 공방에 있어서의 재료연구와 결부된 기초적 형태교육과정. 교육기간은 6개월이며 수료후 실습공방에의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뎃사우 바우하우스에서는 기초교육으로 개칭되고 교육기간도 1년으로 연장되었다.)

B. 공작교육 : 정규의 도제계약과 결부되어 하나의 실습공방에서의 공작교육과 형태교육과정. 교육기간은 3년이며 수료후 수공예회의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및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하우스 직인증서를 수여한다.

C. 건축교육 : 수공적이 공동건축 작업과 특히 능력있는 직인에 대한 자유로운 건축연구과정으로 교육의 전과정을 통해서 음, 색, 형의 통일을 기초로 실제적인 조화를 체득시키는 교육이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특성의 균형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진다. 교육기간은 성적이나 특수사정에 따라 정하며 건축현장과 실습현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작교육과 형태교육의 지속성을 높인다. 수료후 수공예회의소에 입소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하우스의 마이스터증서를 수여한다.

#### 3-2. 교과내용

##### A. 공작교육(Werklehre) :

I·돌, II·나무, III·금속, IV·점토, V·유리, VI·색채, VII·직물

보충교과 :

1)재료와 도구론

2)부기, 경비견적, 계약체결의 기본개념

##### B. 형태교육(Formlehre)

I. 관찰 : 자연연구, 재자연구

II. 표현 : 도화, 구성법, 모든 입체공작도와 모형제작

III. 형성 : 공간론, 색채론, 구도론

보충교재 :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과학의 전 영역에 걸친 모든 강의

### 4. 바우하우스의 조형교육방법

바우하우스의 기초교육은 처음배우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초적 지식을 부여하고 조형에 관련하는 소재와 기술에 숙달되도록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각자의 재능에 따른 전문·연구과정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개인에 대한 창조성의 해방을 추구하고 있었다.

#### 4-1.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의 예비과정

요하네스 이텐의 수업은 「인식가능한 것은 모두 그 대립관계를 통하여 인식되어진다.」는 대비론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명암과 소재와 텍스처의 연구, 형태, 색채론, 리듬, 힘있는 형태 등을 콘트라스트가 주는 영향이라는 관점으로 부터 논해지고 표현되어 졌다. 이텐에 있어서 특히 중요시 되었던 것은 명암의 콘트라스트를 위한 연습이다. 명암은 덧상용의 목탄으로 그려져서 형태, 재료의 대비를 위한 습작을 통하여 다른 과제와 조합되어졌으며 역사적인 거장들의 작품분석도 세세한 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시도되었다.

#### 4-2. 모홀리-나기, 알베르스 (Laszlo Moholy-Nagy, Josef Albers)의 기초과정

모홀리-나기는 학생들에게 재료와 표현형식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또한 새로운 표현형식을 만들기 위하여 구조, 텍스처, 표면처리에 관한 소재연구로서 촉각연습도 행하였으며 다양한 소재를 병행한 「촉각카드」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형교육은 소재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그 가공기술 등의 문제로 진전되고 더우기 입체적인 공간감과 키네틱의 인식, 그리고 건축예의 문제로 승화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

한편 요제프 알베르스의 수업에서 특히 중요시 되었던 것은 주어진 재료를 철저히 연구하는 것이었다. 가능한한 소재의 특성을 살리고 낭비없이 이용해서 만들도록 요구되었다. 이와같은 물질소재를 테마로 취급한 연습은 특히 다음으로 이어지는 공방작업의 준비로서 유용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3차원성과 운동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구조, 형태, 색채의 대비를 이해하기 위한 습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테마로 주어지고 있었다.

#### 4-3. 클레, 칸딘스키 (Paul Klee, Wassily Kandinsky)의 조형교육

클레와 칸딘스키의 조형교육은 기능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우하우스에 있어서 끊임없이 예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클레는 회화적이고 기하적 구성의 문제를 물리적 수학법칙과 인간의 인지에 관한 법칙에 의해 조형적 작용에 기초를 두고 관찰했다. 그는 직관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의 정밀한 연구를 논리적 방법으로 행하여 결과적으로 본질적, 유기적인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칸딘스키의 조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형태요소의 발전과 분석적 덧상을 위한 과정으로부터 성립되고 있었다. 색채론과 형태론, 나아가 색채론과 형태론을 상호결부시킨 것, 또는 평면을 테마로한 조형연습이 수업의 중점항목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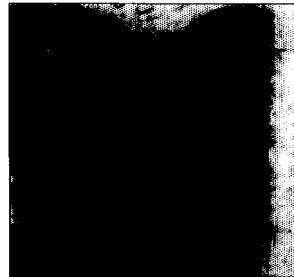
#### 4-4. 쉬렘머, 쉬미트 (Oskar Schlemmer, Joost Schmidt)의 기초교육

덧사우 바우하우스에 있어서 모홀리-나기, 알베르스, 클레, 칸딘스키의 기초과정과 함께 한때는 필수과목으로 설치되었던 것이 쉬렘머의 나체화와 쉬미트의 레터링 수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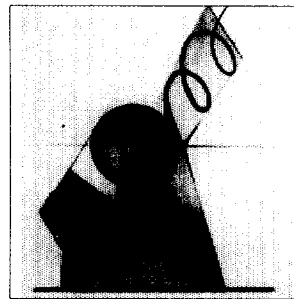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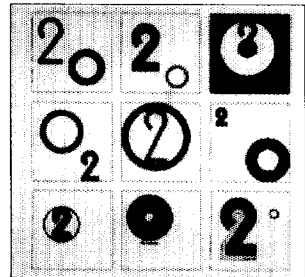
쉬렘머가 담당한 기초교육으로서의 나체화는 정치상태의 묘사뿐만 아니라 동적인 연속변화에 의한 키네틱 표현으로 행해졌다. 쉬렘머에게 있어서 일관된 테마는 육체와 정신이 통합되어진 「인간」이었으며 수업에 있어서 형태적, 생물학적 접근이 행해졌다.

이와같이 쉬렘머의 나체화 수업이 주로 프리핸드(Free Hand)였던 것에 반하여 쉬미트의 레터링 수업은 콤팩스와 삼각자를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1925년부터 1932년까지의 레터링 수업도 문자형태와 색채 연습을 중심으로해서 상업미술 부문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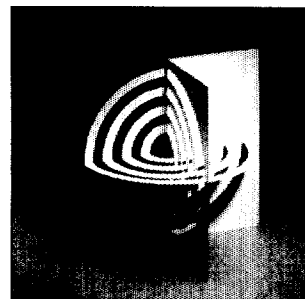
●이텐의 수업



●쉬미트의 수업



●칸딘스키의 수업



●알베르스의 수업

### 5. 맺는말

바우하우스는 공업사회에 있어서 디자이너로서, 또는 수공예가, 조각가, 화가 혹은 건축가로서의 예술적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며, 건축공작에 있어서 협동의 목적을 지니고 예술과 형태의 면에서 모든 수공예의 완전한 조직훈련을 그 기초로 하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처음부터 전통적인 특수교육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은 한정된 지식은 습득하게 하지만 그 작업의 의미나 목적, 혹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인간성이 결핍된 직업도구로의 전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바우하우스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양성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간양성의 원동력이 된 예비과정의 교육은 지성과 감성, 상상력을 전개시킴으로서 모든 사물을 자기의 생물학적 중심으로 부터 본능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포착하여 오늘과 같은 기술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